

# 대구시청· 시내버스에 내걸린 '5·18'

## 대구·광주 달빛동맹, 5·18 추모·기념 '맞손' 권영진 대구시장, 41주년 5·18 기념식 참석

병상 연대 등을 통해 달빛동맹을 이어온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와 기념에도 맞손을 잡았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또 시청사 외벽에 '오월, 시대와 눈맞춘다, 세대와 발맞춘다'라는 글귀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은 광주시청사에 게시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제작됐다.

대구와 광주는 영·호남 대표도시로 국민대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영·호남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위해 지난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약을 체결한 뒤 현재까지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2019년 대구 2·28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228번 시내버스를 신설하고 '2·28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문구를 시내버스 전면부에 부착해 민주화운동의 효시인 2·28운동을 광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다.

지난 2월에는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공식 참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병상 연대를 통해 지자체 간 방역연대의 표상이 되기도 했다.

대구시도 518번 시내버스 17대에 '달빛 동맹으로 상생·협력하는 대구·광주, 평화로 하나되는 5·18 민주화운동', '2·28과 5·18로 하나되는 대구·광주'라는 문구를 시내버스 3면에 부착, 오는 23일까지 시민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두 지자체는 이밖에도 대구~광주 고속도로 조기 확장 개통, 친환경차 선도도시 업무 협약, 남부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에 뜻과 역량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영·호남 6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영·호남 공동번영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내륙철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공동호



5·18광주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대구 518번 시내버스와 대구시청 청사 외벽에 5·18 관련 글귀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달빛동맹은 영·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하나되게 만들고 지역감정을 벗어나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며 "문화예술포럼이나 달빛철도 등 SOC사업과 경제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공동 성장을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대구, '제1기 건강도시학교' 수강생 모집

광주 동구는 주민주도형 건강도시 실현운동과 사업을 전개할 지역사회 건강활동가 양성을 위해 '제1기 건강도시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구에서 처음 추진되는 건강도시학교는 주민주도형 건강도시 실현운동 전개, 건강정책 참여 유도 등 건강도시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동구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도시와 나의 건강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푸른마을공동체센터와 보건소 등에서 열리는 건강도시학교는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 총 7차시(차시별 2~3시간)로 진행된다.

## 서구, 실시간 '차량등록민원 안내시스템' 운영

광주 서구가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주민들의 대기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 민원 대기현황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민원실 순번대기 데이터를 내부 행정망으로 모아서 구 홈페이지로 정보를 송출하는 프로세스로써, 차량등록 민원실의 실시간 대기현황을 PC와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방문 일정 분산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차량등록 일반 민원, 차량등록 대행 및 상사, 변경등록 및 번호판 재교부, 이륜차 증명명, 자동차 말소 및 저장, 자동차 검사 및 과태료, 건설기계 및 조종사 등 7개의 민원서비스 창구의 순번대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출한다.

## 남구, '오월에서 통일로' 푸른길서 통일만보 걷는다

80년 5월 정신 계승 및 통일을 바라는 광주시민들과 1980년에 태어난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푸른길 공원에 모여 만보 걷기에 나선다.

광주 남구는 17일 "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고, 4·27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정신과 가치를 담아 오는 22일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남구 오월 통일만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오월에서 통일로, 걸으면서 통일한다'이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통일만보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광주대 민주동우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 북구, 공공서비스 예약 한곳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광주 북구는 공공서비스 중 예약이 필요한 사이트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북구청 누리집에 예약신청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안내사항으로는 ▲교육·체험 ▲문화·공연 ▲시설대관 ▲어권신청 등 교육 프로그램부터 체육시설, 드론비행연습장 예약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북구청 대표 누리집 화면에 있는 소통광장 또는 예약신청 바로가기 메뉴 선택 후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해 필요한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 광산구, 영구임대 주민 사회활동 촉진수당 지원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사회활동 촉진수당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광산구는 17일 송광중합사회복지관에서 늘행복 공동체사업 '첫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영구임대 늘행복 공동체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사업 참여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늘행복 공동체사업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주민들의 바깥활동 참여를 도와주고, 이웃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광산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 전남개발공사-(재)전남테크노파크 전남 중소벤처기업 혁신조달 지원강화 협약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는 17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조달 지원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조달 확산과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조달'은 기존 기성품 중심의 단순조달 및 구매에서 벗어나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기술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도내 ▲혁신조달

가능 우수기업 및 우수기술 발굴을 위한 협력과 노력 ▲혁신조달 기술 및 제품 등록을 위한 협력과 노력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개발공사의 사업에 활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도내 기업이 우수한 중소·창업·벤처기업을 발굴, 추천하는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은 "공공조달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혁신조달제품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전남도,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문체부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전남도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영산강이 인접한 나주 공산면 36만㎡(11만평)에 사업비 440억원(국비 169억원)을 들여 연면적 8300㎡ 규모로 의병과 의병정신에 대한 전시, 교육, 추모, 체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체부 사전평가는 국립박물관의 부실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건립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확보 등을 종합 평가하는 필수 절차다. 평가가 엄격해 통과율이 27%로 극히 낮고 처음 신청해 통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전남도는 도민과 약속한 2025년 개관을 위해 그동안 박물관 건립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다듬었다. 의병사, 건축, 전시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토론을 통해 박물관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관람객과 소통하고 공감할 전시계획을 마련했다.

또 박물관에서 전시, 연구할 의병 유

물 확보를 위해 전국 의병도시와 총의 사천향회, 의병문중 후손, 광복회 등을 찾아가 유물 기증과 기탁을 요청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남도립도서관, 순천대박물관 등 15개 기관과 유물 공유 협약을 하고, 유튜브 영상도 제작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확산에 노력했다.

그 결과 670점의 의병 유물을 확보했고, 한말 애국지사인 매천 황현 선생의 유물인 보물 제1494호 황현 선생 초상 등 문화재 91점을 기탁받았다.

전남도는 앞으로 문체부 최종 평가에서 제시된 화제인력과 유물 위주의 전시계획을 마련해 보안서류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전남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병박물관으로서 자랑스러운 의병정신을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자, 매력적인 생태 경관을 품은 예코 뮤지엄으로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월 세회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위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1분위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